



광주시청 박태경(왼쪽에서 세번째)이 20일 대전 한밭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남자 일반부 110m 허들 예선에서 여유있게 질주하고 있다. 이날 박태경은 금메달을 획득했다.
/대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첫 금 영광의 얼굴들

“체력 다할때까지 고향 위해 뛸 것”



획득한 박태경은 “체력이 뒷받침된다면 고향을 위해 이 대회는 빠짐없이 출전하겠다”며 “앞으로 몸 관리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태경은 “현재의 컨디션이면 기록 단축도 가능하다.”면서 “꾸준한 체력관리로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남은 경기에서도 투혼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박태경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파이팅을 외친 후 경기장을 나섰다.

광주시청 박태경

“고향에 첫 금메달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 앞으로 남은 400m 계주와 1천 600m 계주에서도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육상 110m 허들에서 13초74를 기록하며 1등으로 끌어온 광주에 첫금을 선사한 박태경(광주시청)이 가쁜 숨을 내쉬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박태경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종별선수권·육상선수권·실업연맹전에 이어 올시즌 4관왕의 영예도 안았다. 10년간 전국체전에서만 무려 35개의 금메달을

“컨디션 최고…3관왕으로 성원 보답”



목소리로 소감을 밝혔다.

홍현지는 지난 6월 이사장배 대회에서도 500m 독주에 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신장 167cm의 홍현지는 남보다 뛰어난 체력이 최대의 장점이다. 현재 국가 대표 상비군인 홍현지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홍현지는 “이번 대회에서 남은 200m와 단체스프린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덧붙였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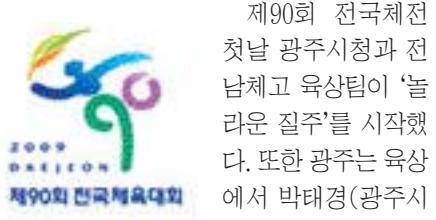
전남미용고 홍현지

“전날 고릴라에 쳤겨 열심히 도망가는 꿈을 꾸었는데 그게 금메달 꿈이었나 봐요”

전남에 첫금을 선사한 사이를 홍현지(전남미용고 3년·500m 독주)가 우승 소감에 앞서 꿈 얘기 먼저 털어놓았다.

우승의 홍분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홍현지는 “내가 판 메달이 전남의 첫번째 금이여서 더욱 기쁘다”면서 “다른 대회 때보다 컨디션이 훨씬 좋았고, 특히 몸이 가벼워 평소 훈련대로 하면 우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멀리

광주시청 육상팀 첫 날 ‘놀라운 질주’



제90회 전국체전 첫날 광주시청과 전남체고 육상팀이 ‘놀라운 질주’를 시작했다. 또한 광주는 육상에서 박태경(광주시청)이, 전남은 사이클에서 홍현지(전남미용고)가 각각 고향에 첫 금을 획득했다.

광주시청 육상팀은 20일 대전 한밭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남자 일반부 110m 허들 예선에서 여유있게 질주하고 있다. 이날 박태경은 금메달을 획득했다.

국가대표 박태경은 이날 110m 허들 결승에서 13초74를 기록, 라이벌 이종진을 제치고 1위로 끌어왔다. 또한 박태경은 광주선수단에 첫 금을 안기는 기쁨도 누렸다.

이어 열린 세단뛰기 예선 국가대표 김덕현이 16m 86cm 뛰어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세단뛰기 김덕현 대회 신 등 금 2, 은 1, 동 2 사냥

전남체고 육상 금 3, 은 1 획득…사이클·볼링도 금

100m 국가대표 임희남은 이날 뒤늦은 스타트로 라이벌 전현현(대전)에 이어 10초64로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

하지만 100m에 같이 출전한 박평환은 임희남에 이어 세번째로 골인, 메달 사냥에 힘을 실었다. 400m 결승에 오른 최명준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육상 일반부 해머던지기에서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 또 남자 일반부 육상 5천m에서는 이두행(해남군청)이 금메달을 추가했다.

월평사이클 경기장에서 열린 여고부 사이클 500m 독주에 홍현지가 가장 먼저 골인, 전남에 첫 금메달 낭보를 전했다.

광주선수단은 광주시청 육상팀의 메달사

고등부에선 전남체고가 육상에서 금 3개, 은 1개를 획득했다. 전남체고는 이날 남고부에서 이승호(높이뛰기·2m00)·김한성(장애 높이뛰기·480cm), 여고부에서 김희정(800m·2분18초00)이 각각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라 고향의 명예를 드높였다.

이동호(전남체고)는 해머던지기에서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 또 남자 일반부 육상 5천m에서는 이두행(해남군청)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이클에선 이은지(나주시청·500m 독주)가, 육상에선 남일부 박영민(코오롱·5천m)·여일부 조수화(광양시청·포환던지기)가 각각 2위를 기록했다.

한편 여자 해리클래스 장미란(26·고양시청)은 역도 최중량급에서 3관왕에 올랐다.

장미란은 20일 여자 일반부 최중량급(+75kg) 경기에서 인상 130kg, 용상 180kg을 들어 올려 함께 310kg으로 금메달 3개를 훔쳤다.

광주선수단은 광주시청 육상팀의 메달사

낭에 힘입어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축구경기에서 금호고가 대구 대륜고를 4-3으로 꺾고 남고부 1회전을 통과했다. 테니스 개인전에선 신동학(설레시오고)이 전남 윤신성과의 ‘형제대결’에서 2-0으로 이기고 2회전에 진출했다. 복싱에선 대학부 백호준이 1회전에 통과했으나 대체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전남은 이날 사이클·육상에 이어 볼링에 서도 이슬아(고향실고)가 여고부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이클에선 이은지(나주시청·500m 독주)가, 육상에선 남일부 박영민(코오롱·5천m)·여일부 조수화(광양시청·포환던지기)가 각각 2위를 기록했다.

한편 여자 해리클래스 장미란(26·고양시청)은 역도 최중량급에서 3관왕에 올랐다.

장미란은 20일 여자 일반부 최중량급(+75kg) 경기에서 인상 130kg, 용상 180kg을 들어 올려 함께 310kg으로 금메달 3개를 훔쳤다.

광주선수단은 광주시청 육상팀의 메달사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1. 매우 잘 들립니다. 2. 안보입니다. 3.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본점(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충장점(062)227-9970

순천점(061)752-9940
목포점(061)262-9200
의산점(063)851-2422

(16 : 50-SBS스포츠)

▲프로농구<오리온> 삼성(18 : 50·MBC ESPN) <KT&G> 전자랜드(18 : 50·Xports)

▲AFC 월드컵리그 4강 1차전<포항> 움살랄(19 : 20·SBS스포츠)

▲여자프로농구<우리은행> 신세계(18 : 50-SBS스포츠)



금 매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46-2 백악관 예식장

■대지면적 : 1770m²(535평)

■지 역 : 준 주거지역

■건축면적

구 분	면 적(m ²)	용 도
지 1층	1147.07	주거장
1층	584.2	휴게음식점 외
2층	584.2	예식장
3층	493.65	예식장
4층	493.65	식당
5층	493.65	식당
계	3796(1148평)	

■추천용도

- 예식장, 병원, 교회, 학원, 대형마트
사무나, 체육시설 등

■매매가 : 23억(대출금 13억 포함)

복구 중홍동 1,250㎡

매매가 12억(임대기)

대로변, 위치좋음, 공시지가이하

(현임대수입:년 21,000만, 월 1,800만)

· 전원주택 매매 ·

회순군 춘향면 용두리 69번지

대지 1,270㎡ 매매가 4,500만

상담 ☎ 062)385-2800

전화 011-647-4114

正心 正視 正行

명당 공인증사 062)431-2834.
(H.P) 010-6460-2834

대표: 김 불 규 (정원증정번호 16-07-29)

전 호남대학과 광주대학교와 원우회장

전 국립대와 광주시립대학원과 원우회장

전 국립대와 광주시립대학원과 원우회장

전 경상대와 광주대학교와 원우회장

전 서부대와 광주대학교와 원우회장

전 대전대와 광주대학교와 원